

김도영 4경기 연속 홈런...KIA 2연속 '루징 시리즈'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7차전에서 1회초 홈런을 터트리며 4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윤영철 5이닝 2실점 호투에도 삼성에 2-3 끝내기패 나성범·위즈덤·김선빈 부상 이탈... '잇몸 야구' 한계



'부상 악재'를 만난 KIA가 디아즈의 끝내기 홈런에 연달아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7차전에서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대구 원정에 앞서 내야의 핵심 김선빈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고, 25일에는 외야의 새 전력 박정우가 첫 타석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고 교체됐다.

KIA는 부상 악재 속 이를 연속 선취점을 가져오 고도 승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특히 김도영은 4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지만 팀 패배에 웃지 못했다.

KIA와 삼성이 1회부터 홈런을 주고받았다. 1회초 2사에서 김도영이 손맛을 봤다.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1볼-2스트라이크에서 삼성 선발 원태인의 4구째 149km 직구를 우측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선제 솔로포를 장식했다. 지난 22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이어진 4경기 연속 홈런이다.

하지만 1회말 삼성의 홈런포도 가동됐다. KIA 선발 윤영철이 선두타자 김지찬을 7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뒤 김성윤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1루. 윤영철이 구자욱을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디아즈에게 던진 초구 직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역전 투런포가 됐다.

윤영철은 김영웅을 10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1회 실점을 했던 윤영철은 2-3-4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다. 5회에는 2사에서 안타와 볼넷으로 2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를 끝으로 KIA 불펜이 가동되면서 윤영철(82구)은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윤영철이 호투를 이어가는 동안 KIA가 두 차례 추격의 기회를 잡았다.

3회초 선두타자 김태군이 좌측 2루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하지만 투수 앞 번트를 시도했던 박정우가 1루 베이스를 밟은 뒤 왼쪽 허벅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박정우가 부상으로 교체됐고, 후속타가

불발되면서 3회가 소독 없이 끝났다.

5회는 더 아쉬웠다. 김석환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고, 1사에서 김태군과 김호령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이어 박찬호의 매서운 타구가 나왔지만 우익수 김성윤이 좋은 수비로 공을 바로 낚아채면서 적시타가 아닌 우익수 플라이가 기록했다. 그리고 오선우의 헛스윙 삼진과 함께 KIA가 추가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6회말 이준영을 시작으로 KIA 불펜이 움직였다.

김성윤을 2루 땅볼로 잡은 이준영은 구자욱과 디아즈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끝냈다.

그리고 이어진 7회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귀한 홈런이 나왔다.

2사에서 세 번째 타석에 선 김태군이 삼성의 두 번째 투수 백정현의 3구째 직구를 받아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2-2를 만들었다. 김태군은 마수걸이 홈런으로 시즌 첫 3안타를 장식했다.

7회말에는 전상현이 나와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전상현은 8회에도 나와 선두타자 박승규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양도근을 포수 앞 땅볼 때 김태군이 2루 송구를 선택하면서 선행주자를 잡았다. 1사 1루에서 조상우가 투입됐다.

조상우가 김지찬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김성윤과 구자욱을 각각 삼진과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실점은 하지 않았다.

9회초 최형우의 선두타자 안타와 상대 실책이 나왔지만 득점에 실패한 KIA는 9회말 시작과 함께 패배의 쓴 맛을 봤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가 디아즈에게 던진 초구 포크볼이 좌측 담장을 살짝 넘어가면서 끝내기 홈런이 됐다.

전날 8개의 볼넷으로 자멸했던 불펜은 이날 뒷심 싸움에서는 분전했지만 디아즈의 한 방에 승리를 내줬다.

나성범, 위즈덤, 김선빈의 부상으로 '잇몸 야구'를 펼치고 있는 KIA는 KT와 삼성에 연달아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종료 직전에...광주FC, 통한의 페널티킥 허용

K리그1 15R 강원에 0-1 패



광주FC가 안방에서 통한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연승에 실패했다.

광주FC는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김동현의 페널티킥골에 0-1 패를 기록했다.

전반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전반전 두 팀은 유효슈팅을 남기지 못했다.

광주가 후반전 박인혁을 투입해 골 사냥에 나섰다. 0-0으로 맞선 후반 11분 박인혁의 헤더가 나왔지만 강원 골키퍼 이광연의 품에 안겼다.

후반 31분 다시 한번 박인혁이 아쉬움의 탄성을 내질렀다. 변준수가 오른쪽에서 올려 준 공을 가슴으로 받은 박인혁이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후반 42분 박태준이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시도한 프리킥이 골대 위로 빠져나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45분에는 헤이스와 아사니가 오른발과 머



광주FC 선수들이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리로 강원 골대를 두드렸지만 이광연에 막혔다.

7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아쉬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광주 문전에서 공중볼을 놓고 광주 조성권과 강원 김도현의 몸싸움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이 조성권의 팔에 닿았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 끝에 페

널티킥을 선언했다.

후반 51분 김동현이 키커로 광주 골키퍼 수문장 김경민을 마주했다. 잠시 뒤 김동현의 오른발을 떠난 공이 광주 골대를 뚫으면서 0-0의 균형을 깨졌고, 강원도 승점 3점을 가져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2367일만의 인천 원정서 패배

K리그2 13R 0-2로 져

전남이 2367일만의 인천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드래곤즈가 2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13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0-2 패를 기록했다. 전남의 7경기 연속 무패가 중단됐고, 인천은 승리로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1위 인천과 승점 6점 차 2위 전남의 눈길 끄는 승부이자 2367일 만에 전개되는 맞대결이었다. 전남이 2018시즌이 끝난 뒤 강등의 아픔을 겪었고, 이어 인천이 지난 시즌 K리그1 최하위로 K리그2로 내려왔다.

기대감 속에 오른 인천 원정길이었지만 전반 9분 만에 퇴장 악재가 발생했다.

전남 구현준이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하려던 바로 우를 잡아당기면서 레드 카드를 받았다. 그리고 인

천 무고사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반 후반 시간에 무고사가 오른발로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0-1로 뒤진 후반 19분 전남이 두 번째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땅을 쳤다.

이번에는 제르소 슈팅이 박스에 있던 김예성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무고사가 다시 한번 키커로 나섰고, 오른발로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남은 수적 열세 속 23개의 슈팅을 날린 상대 공세에 시달리면서 기다렸던 인천 원정을 0-2 패배로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25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랭스와 2024-2025 프랑스컵 결승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PSG, 프랑스컵 2연패...이강인 결장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강인(24)이 뛰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스타드 드 랭스를 꺾고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2연패를 달성했다.

PSG는 25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랭스와 2024-2025 프랑스컵 결승에서 3-0 대승을 거두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PSG는 프랑스컵에서 2연패와 함께 통산 16번째 우승을 따냈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PSG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프랑스컵까지 따내며 이번 시즌 3개의 트로피를 챙겼다.

다만 PSG의 이강인은 이날 랭스전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8일 오세르와의 2024-2025 리그1 34라운드 최종전에서도 벤치만 지켰던 이강인은 프랑

스컵 결승에서도 벤치만 달구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통산 6번째(정규리그 2회·프랑스컵 2회·프랑스 슈퍼컵 2회) 트로피를 품었다.

PSG는 전반에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브래들리 바르클라의 활약을 앞세워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바르클라는 전반 16분 데지레 두에의 침투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정면으로 뛰어들며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포를 터트렸다.

바르클라는 3분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두에의 크로스를 받아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방향을 바꿔 멀티골을 완성했다.

전반을 3-0으로 마친 PSG는 후반에 5명의 선수를 교체했지만, 이강인에게는 끝내 출전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강인은 경기 후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 세리머니에 참석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연합뉴스